

정부신뢰와 부패인식: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Government Trust and Corruption Perceptions in Asian Countries

장 용 진(Chang, Yongjin)**

ABSTRACT

The current study has examined the influences of government trust on corruption perceptions of citizens in Asian countries. The study analyzes the Asian Barometer Survey data collected from 13 Asian countries from 2010 to 2012. According to descriptive statistics, Singapore shows the lowest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s by citizens and Mongolia was the most corrupt country among 9 countries. The findings of ordered probit regression models indicate that the trust in civil service affects reducing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 Japan, South Korea, Thailand, and Cambodia. The trust in the President or prime minister in most countries except Mongolia and Singapore ha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s. In addition, the trust in Parliament is an important variable to decrease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 Mongolia, Indonesia, Singapore, and Malaysia. In most countries in this study except Japan, Mongolia, and Indonesia, the trust in the courts is a crucial factor to decrease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s as well. The trust level of non-profit organizations is significant to decrease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s in South Korea, Thailand, and Indonesia. On the contrary, the trust level affects increasing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s in Singapore and Cambodia.

Key words: Public Trust, Corruption Perceptions, Comparative Study, Asian Countries

서론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정부 신뢰의 중요한 원인으로 부패를 연구했다. 이 연구들은 시민들의 부패인식은 시민들과는 다소 떨어져 있는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2012S1A3A2033282).

** 일본국제대학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주기에 어떤 정부이든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없애는 노력이 중요하다(Anderson & Tverdova, 2003; Blind, 2007; Catterberg & Moreno, 2006; Chang & Chu, 2006; Dong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이 인과관계를 반대로 보고자 한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시민들의 부패인식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부패를 방지하는 국회, 부패가 발견됐음에도 제대로 사법처리하지 못하는 사법기관, 부패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국가 지도자(대통령 또는 총리), 실적주의 보다는 정치적 후원에 의해 선발되어 능력이 없거나 낮은 보수로 인해 항상 부패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정부에 대한 감시보다는 정부의 관변단체 역할을 하는 비정부단체들은 실제 부패와 시민들의 부패인식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러한 정부의 능력이나 정부의 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는 반대의 시각으로 정부신뢰와 부패에 대해 접근하는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아시아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정부 체제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서구세력의 식민지배를 통해 정치와 행정 체제가 이식되어졌다. 식민지배를 한 국가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었고,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도 식민지 국가의 편의에 따라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오래 전부터 법의 지배를 강조해 왔고, 필리핀은 미국의 정치와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했다(장용진, 2013a; 장용진, 2013b).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영국,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그리고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오랜기간 동안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이들 국가의 정부체제는 식민지 지배국의 체제를 모방했고 이 체제는 현재까지도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두래, 2013; 임현, 2013a; 임현, 2013b; 최상욱, 2013).

다양한 식민 경험처럼 아시아 국가들의 부패수준도 다양하다. 세계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2013년 부패지수: 86점), 홍콩(2013년 부패지수: 75점), 일본(2013년 부패지수: 74점)은 항상 낮은 부패수준을 보여 주지만 필리핀(2013년 부패지수 36점), 인도네시아(2013년 부패지수: 32점), 베트남(2013년 부패지수: 31점)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한 국가의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기에 식민지배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체제가 해당국가의 부패수준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정부체제, 정부의 질, 또는 정부의 능력이 해당 국가의 부패수준을 결정짓는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아시아 국가 중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부패가 잘 통제되고 있는 이유는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CAC)와 부패행위조사국(Corruption Practice Investigation Bureau, CPIB)과 같은 강력한 부패통제 기관을 만들고, 높은 보수와 유능한 공무원의 채용으로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켰기 때문으로 보고 있기에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정부의 질은 시민들의 부패인식과 실제 부패수준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Quah, 2011). 또한 대만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부터 천천히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국가의 부패를 없애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만 정부는 지난 20년간 공공부문의 부패를 없애고, 금권정치의 영향을 줄이고, 정직하고, 능력있고, 개방되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법과 규칙을 제정했다(Yu, Chen, & Lin, 2013: 63). 즉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부패에 대한 문화의 변화를 통해 부패를 통제하기 보다는 정부 주도적으로 먼저 부패관련 제도를 바꾸고 이를 통해 문화를 바꿔가는 방식을 통해 부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주도하는 정부의 질이나 능력은 부패의 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들의 부패의 원인을 정부의 질 또는 정부의 능력에서 찾고자 한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정부의 질이나 정부의 능력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통해 보여진다고 가정하고 각 국가기관(의회, 법원, 대통령, 공무원)과 비정부단체에 대한 신뢰가 시민들의 부패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부분에선 정부신뢰와 부패에 대한 기존 문헌과 이론들을 살펴보고, 두번째 부분에선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체제에 대한 일반적 특징들을 검토하고, 아시안 바로미터 서베이(Asian Barometer Survey)의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의 정부신뢰와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본다. 세번째 부분에선 각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정도가 부패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마지막 부분에선 분석의 함의와 결론을 제시한다.

본론

1. 정부 신뢰와 부패

1) 정부 신뢰

정부 신뢰는 사람들이 정부가 그들의 기대에 맞게 얼마만큼 결과(outcome)를 만들어 내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정부신뢰는 얼마나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그들의 기대에 맞춰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Hetherington, 2005: 9-10). 정부신뢰에 대한 정의는 간단한 듯 보이지만, 정의하기 쉽지 않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Wong et al.(2011)의 연구에선 정부신뢰에 대한 기존의 학자들의 논의를 크게 제도적 그리고 문화적 접근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제도적 접근은 정치 신뢰가 정치기구의 성과에 대한 개인들의 합리적 반응이며 내생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책의 결과와 정치행위자

들의 성과를 강조한다. 또한 정치기구들에 대한 신뢰는 이러한 기구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생산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한다. 따라서 제도적 접근에서의 정부신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정책을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문화적 접근이다. 문화적 접근의 학자들은 정치신뢰를 외생적으로 본다. 그들은 정치신뢰가 정치 공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문화적 가치나 사람들의 믿음에 기원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신뢰는 정부기구들의 성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만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 조정되고 문화와 사회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적 접근을 하는 학자들이 국가기관들의 성과에 대한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Mishler & Rose(2001)나 Wong et al.(2011)의 연구에선 국가기관들의 성과가 정치 신뢰를 높인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Wong et al, 2011: 264-265).

박종민·배정현(2007)은 Norris(1999)의 연구를 빌려 정부신뢰는 “통치제도로서의 정부에 대한 평가”와 현정부에 대한 평가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로서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현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현정부에 대한 불신은 집권 정부를 교체하면 해소될 수 있지만 통치제도로서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해소될 수 없기에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고 다차원적인 현상인 정부신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신뢰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 2). 그들은 정부신뢰의 근원은 정부의 능력과 정부의 공정성에 있으며 정부는 국민을 위해 부여 받은 책임과 의무를 유능하게 수행하고 모든 국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해야만 정부신뢰가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주장한다(p. 4).

Barber(1983)의 경우 신뢰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유능한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와 “수탁의무와 책임에 대한 기대” 두가지 차원을 강조했다(박종민·배정현, 2011: 121 재인용). 또한 Stokes(1962)도 정부신뢰에는 정부관료의 능력과 효율성 그리고 잘못된 결정에 대한 수정 등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금현섭·백승주, 2010: 206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부신뢰를 제도적 관점에서 정부의 능력이나 정부의 질을 보여주는 척도로 가정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2) 부패의 원인

부패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Heinrich & Rhodes, 2011: 18). 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의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을 오용(남용)하는 것(the misuse of public office with the purpose of making private gains)”이다. 본질적으로 부패는 개념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경험적으로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또한 부패에 대한 원인이 법체제를 포함하는 정부기관

의 설정, 국가의 발전 상태, 문화 등 다양하기에 부패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실제 부패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Kis-Katos & Schulze, 2013: 80). 기존의 연구들은 부패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결정요인들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Brunetti & Weder(2003)가 제시한 3가지의 부패의 결정요인을 통해 부패의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그들이 제시하는 3가지 요인은 내부통제, 외부통제, 그리고 간접적 결정요인이다. 첫째 내부통제는 관료제 안에서 부패를 통제하는 모든 시스템과 인센티브를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명백한 성과의 기준이 없거나 개별적 관료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환경속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Rauch & Evans(2000)는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의 중요한 요소로 관료제의 채용과 승진이 실적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친척 등용이나 정실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제시한다. 정실주의가 덜 하다는 것은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가 관료들의 결탁을 통해 제거될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적주의 채용과 승진 지표는 부패와 아주 중요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Brunetti & Weder, 2003에서 재인용). 비슷한 맥락에서 Rose-Ackerman(2001)도 낮은 보수와 부족한 감시·감독은 부패와 부패인식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관료제의 질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어떤 국가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선행의 대상이거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통이나 공직에서 일한다는 개인의 자부심은 왜 어떤 관료들은 효율적이고 어떤 관료들은 부패에 덜 취약한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실주의, 정치적 후원에 의한 채용, 채용과 승진에 대한 명백한 규칙 등은 모두 관료제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Tanzi, 1998). 내부통제의 두 번째는 국가 수장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최고의 수장인 대통령이나 수상이 부패에 연루되거나 또는 친척, 친구 또는 정치적 동지들에 대한 부패행위를 용서하는 잘못된 전형을 보여준다면, 그 이하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행동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부패한 장관을 해고하는 것을 거부했고,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부패로 기소된 장관을 다른 부서의 장관으로 임명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한 국가에서는 반부패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의 장을 심각하게 부패했다고 알려진 인물을 임명했다. 이러한 예들은 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Tanzi, 1998). 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리더의 정직성과 가시적인 헌신은 부패를 줄이는데 아주 중요하며 리더는 부패에 대해선 인내심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부패한 지도자가 그들이 따라야 하는 법, 규칙, 절차를 무시하고, 이들이 기소를 당하거나 유죄판결도 받지 않게 된다면 국민들은 리더가 지키지도 않는 법을 지키는 자신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Pepys, 2005). 홍콩과 싱가포르의 정치적 의지와 강한 리더십을 통해 부패와 싸웠다(Uslander, 2008). 특히 리관유의 리더십은 현재의 부패에서 자유로운 싱가포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Quah, 2011).

두 번째는 외부통제이다. 부패에 대한 외부통제는 행정부 외부의 개인들과 조직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이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서 주로 사법권력에 의해 수행된다. 부패한 관료들에 대해 쉽고 효과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법원 시스템은 부패의 잠재적 보상을 급격하게 줄일 것이다(Brunetti & Weder, 2003). 보통법 체제를 도입한 영국의 식민지들은 시민법 체제를 받아들인 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 비해 효과적인 사법시스템을 보여준다. Treisman(2000)은 영국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보통법 체제의 역할로 부패 인식이 줄어들음을 보여준다(Dreher et al. 2007, 448 재인용). 또한 사법부의 질은 부패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정치가 사법부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거물급 부패행위자들이 기소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패한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부패 거래를 강행하기 위해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많은 실증 연구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부패를 낮춘다는 증거들을 보여준다(Lambsdorff, 2007). 즉 독립적 사법부는 사회에 있어 신뢰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보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Blind, 2007).

의회 역시 행정부의 부패를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가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해임의 권한이 있기에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강하고 즉각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이러한 의회의 감시 역량은 단일 정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약화될 수 있다. 국가 기관의 잘 발달된 견제와 균형 체제는 정부 관료들의 잘못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부패의 수준을 줄이는데 중요하다(Lederman et al. 2005). 국회 의원이 재선에 관심이 있고 행정부와 소속 정당의 리더로부터 독립적일 경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전문화시키려고 한다. 전문화는 전문성과 전문지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부에 대한 이해, 감시, 그리고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Morengstern & Manzetti, 2003).

정부 부문의 견제와 균형이 덜 발달한 사회에서는 사회의 다른 부분들이 외부통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는 정부의 성과나 부패를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Rahman, 1986. Tella, 1999. Brunetti & Weder, 2003에서 재인용). 비정부기관(NGO)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게 된 시민들의 관심을 모아 정치 영역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NGO들은 정부의 부패를 줄이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Xin & Rudel, 2004).

셋째는 부패에 대한 간접적 결정요인이다. 많은 연구들이 문화와 경제의 왜곡 수준을 부패의 간접적 결정요인으로 언급한다. 특히 관료 엘리트주의 문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관계 문화의 부재, 인종의 다양성 부재, 집단주의 같은 문화적 요인과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 규제에 대한 재량권, 관료들의 독점적 권력은 대표적인 문화와 경제시장의 왜곡과 관련된 부패의 간접적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Lee, 1986. Tanzi, 1994. Shleifer & Vishny, 1993. Kaufman, 1997. Ades & Di Tella, 1999. Brunetti & Weder, 2003 재인용; Bukuluki, 2013).

3) 정부신뢰와 부패와의 관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신뢰와 부패(부패인식)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신뢰의 한 원인으로 부패(부패인식)를 연구했고 실제 부패(부패인식)가 정부신뢰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신뢰는 부패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즉 정부신뢰와 부패의 관계는 상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부패에 대한 인식을 낮출 것이고 부패에 대한 인식이 낮은 국가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선순환구조를 가질 것인지 악순환구조를 가질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정부신뢰와 부패에 대한 상호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로 Morris & Klesner(2010)는 2004년 아메리카 바로미터 서베이를 기초로 한 멕시코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신뢰와 부패인식은 강력한 상호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서베이 응답자들 중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강한 응답자일수록 낮은 수준의 정치신뢰를 보였고 반대로 국가 정부기관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인 응답자일수록 부패에 대해 덜 인식하고 있었다. Chang & Chu(2006)의 연구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시민일수록 정치인들이 더 부패했다고 여기고 있었고 부패 역시 정부신뢰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김왕식(2008)의 연구에서도 부패인식과 정부신뢰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에 더해 그의 연구는 부패인식에서 정부신뢰로의 영향력보다 정부신뢰가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함을 보여주었다.

정부신뢰와 부패인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신뢰를 하나의 변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가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합하고 평균하여 정부신뢰에 대한 측정을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여 시민들의 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패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다.

가설 1: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은 감소한다.

가설 2: 시민들의 국가 수장(대통령 또는 수상)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은 감소한다.

가설 3: 국회(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은 감소한다.

가설 4: 법원(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은 감소한다.

가설 5: 비정부(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은 감소한다.

2.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특성

서베이 자료를 통한 분석에 들어가기 전 본 연구는 먼저 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을 간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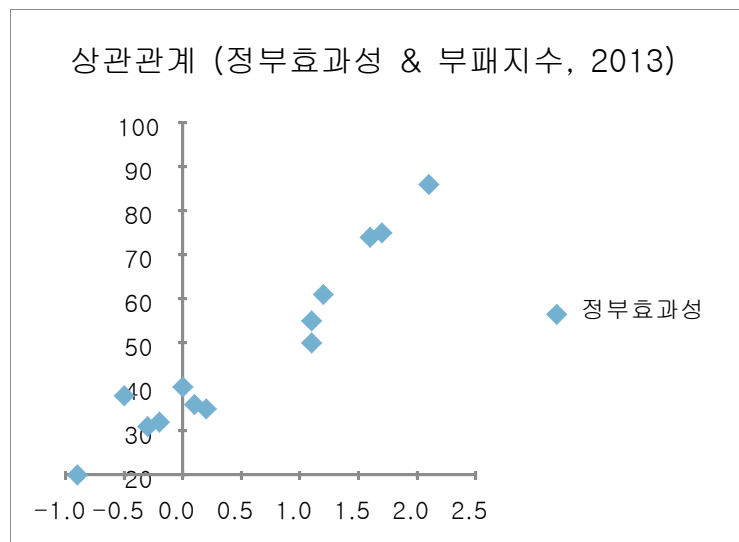
게 살펴본다. <표 1>은 아시아 13개국의 특성을 보여준다.

〈표 1〉 아시아 국가의 정치체제

| 특성 국가 | 법체제 | 식민지 독립 | 정부유형 |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
|----------|---|---|--------------------------------|---------------|---------------|---------------------------------------|
| 캄보디아 | 시민법, 관습법, 공산주의 법이론, 영미법 | 1953년 프랑스로부터 | 입헌군주제 하다 수당 민주주의 | 양원제 | 왕/총리 | 최고법원: 대법원 & 헌법재판소 |
| 중국 | 소련과 대륙법적 전통 에 입각한 시민법 (Civil Law) | 1949년 중국민주공화 국으로 세워짐 | 공산주의 | 단원제 (간접선거) | 대통령/ 간접선거 | 최고인민법원 |
| 홍콩 | 영국모델에 기초한 보통법 (Common Law) | 199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1842-1997) | 제한적 민주주의 | 단원제 (간접선거) | 행정장관/ 간접선거 | 최종상고법원 |
| 인도네시아 | 로마-독일 모델의 시민법(Civil Law System) | 1945년 일본(1942- 1945)으로부터 독립 /네델란드지배 (1942년 이전) | 대통령제 공화정 /선거민주주의 | 양원제 | 대통령/ 직접선거 | 최고법원/ 헌법재판소/ 반부패법원 (Tipikor) |
| 일본 | 독일 모델에 기초한 시민법(Civil Law System) | 없음 |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선거 민주주의 | 양원제 | 수상 | 최고법원(헌 법재판 포함) |
| 한국 | 유럽식 시민법(Civil Law) & 영미법(Anglo American Law) | 1945년 일본으로부터 | 민주공화국/ 대통령제 공화정 /선거 민주주의 | 단원제 | 대통령 | 대법원/ 헌법재판소 |
| 말레이시아 | 영국식 보통법 (Common Law) | 1957년 영국으로부터 | 헌법적 군주제/ 내각책임제 | 양원제 | 왕/수상 | 연방법원 |
| 몽고 | 소련, 로마-독일에 영향을 받은 시민법 (Civil Law System) | 1921년 중국으로부터 | 의원내각제/ 선거 민주주의/ 의원집정부제 | 단원제 | 대통령 (직접선거) | 최고법원/ 헌법재판소 |
| 필리핀 | 혼합 (시민법 + 보통법) |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1898년 스페인 으로부터 독립 | 대통령제/ 민주공화국/ 선거 민주주의 | 양원제 | 대통령 | 최고법원/ Sandiganbayan (부패특별법원) |
| 싱가포르 | 영국식 보통법 (Common Law) | 1959년 영국으로부터 독립/1965년 말레이 시아 연합에서 독립 | 내각책임제 (의원내각제)/ 민주공화국 | 단원제 | 대통령 (상징적) | 최고법원 |
| 대만 | 시민법 (Civil Law System) | 1945년 일본으로부터 (1895년부터) | 다당제 민주주의 | 단원제 | 총통 | 최고법원/ 헌법재판소 |
| 태국 | 보통법(Common Law) 의 영향을 받은 시민 법(Civil Law) | 없음 | 입헌군주제/ 선거 민주주의 | 양원제 | 왕/수상 | 최고법원/ 헌법재판소/ 최고행정법원 |
| 베트남 | 유럽식 시민법(Civil Law System) | 1945년 프랑스 | 공산주의 | 단원제 | 대통령 (간접선거) | 최고법원 |

<표 1>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법체계의 경우 영국식 보통법(Common Law)의 영향을 받은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시민법(Civil Law)의 전통을 받았거나 혼합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식민지 독립의 경우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프랑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 대만과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 태국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은 국가이다. 정부유형은 캄보디아,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은 입헌군주제를,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주의,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대만, 홍콩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몽고, 싱가포르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부의 경우 중국, 홍콩, 한국, 몽고,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은 단원제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태국은 양원제를 택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의 경우 중국, 홍콩, 베트남, 일본은 간접선거에 의해 나머지 국가들은 직접선거로 뽑고 있다.

이들 국가의 2013년 정부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에 관한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와 세계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서로 아주 높은 정(+)의 상관관계(0.962)를 보여준다. 부패지수는 높을수록 부패가 없음을 의미하기에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가 덜하거나 부패가 없는 국가일수록 정부의 효과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3. 자료와 연구방법

아시아 국가의 정부신뢰와 부패인식에 대한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아시안 바로미터 서베이(Asian Barometer Survey, 이하 ABS) 세번째 조사를 사용한다. ABS 세

번째 조사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고 참여국가들은 일본, 홍콩,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몽고, 싱가포르, 베트남 총 13개국이다. ABS는 정치적 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설문 조사이다(Ser & Zhengxu, 2007).¹⁾

<표 2>는 ABS에 참여한 국가와 참여자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이다.

<표 2>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 국가 | N | 성별 | | 연령 | | | | N | 교육 | | |
|-------|--------|-----------------|-----------------|------------------|--------------------|--------------------|------------------|--------|---------------------|----------------------------|-----------------|
| | | 남 (%) | 여 (%) | 20세 이하 (%) | 21세- 40세 (%) | 41세- 60세 (%) | 61세 이상 (%) | | 초등학교 졸업이하 (%) | 중등교육- 고등학교 졸업 (%) | 대학 이상 (%) |
| 일본 | 1,880 | 890 (47.3) | 990 (52.7) | 7 (0.4) | 415 (22.1) | 600 (31.9) | 858 (45.6) | 1,664 | 243 (14.6) | 1,023 (61.5) | 398 (23.9) |
| 홍콩 | 1,207 | 553 (45.8) | 654 (54.2) | 81 (6.7) | 302 (25) | 444 (36.8) | 380 (31.5) | 1,119 | 353 (31.5) | 611 (54.6) | 155 (13.9) |
| 한국 | 1,207 | 605 (50.1) | 602 (49.9) | 45 (3.7) | 413 (34.2) | 551 (45.7) | 198 (16.4) | 1,064 | 119 (11.2) | 560 (52.6) | 385 (36.2) |
| 중국 | 3,473 | 1,824 (52.5) | 1,647 (47.4) | 166 (4.8) | 1,208 (34.8) | 1,475 (42.5) | 624 (18) | 3,394 | 1,195 (35.2) | 1,903 (56.1) | 296 (8.7) |
| 몽고 | 1,210 | 537 (44.4) | 673 (55.6) | 46 (3.8) | 602 (49.8) | 436 (36) | 126 (10.4) | 1,210 | 286 (25.8) | 497 (41.1) | 427 (35.3) |
| 필리핀 | 1,200 | 600 (50) | 600 (50) | 71 (5.9) | 585 (48.8) | 398 (33.2) | 146 (12.2) | 1,033 | 266 (25.8) | 605 (58.6) | 162 (15.7) |
| 대만 | 1,592 | 835 (52.4) | 757 (47.6) | 0 (0) | 627 (39.4) | 676 (42.5) | 289 (18.2) | 1,497 | 269 (18.0) | 872 (58.2) | 356 (23.8) |
| 태국 | 1,512 | 723 (47.8) | 774 (51.2) | 31 (2.1) | 489 (32.3) | 706 (46.7) | 286 (18.9) | 1,470 | 879 (59.8) | 435 (29.6) | 156 (10.6) |
| 인도네시아 | 1,550 | 775 (50) | 775 (50) | 83 (5.4) | 688 (44.4) | 620 (40) | 159 (10.3) | 1,516 | 743 (49.0) | 668 (44.1) | 105 (6.9) |
| 싱가포르 | 1,000 | 500 (50) | 500 (50) | 0 (0) | 545 (54.5) | 353 (35.3) | 102 (10.2) | 830 | 205 (24.7) | 440 (53) | 185 (22.3) |
| 베트남 | 1,191 | 652 (54.7) | 539 (45.3) | 53 (4.5) | 495 (41.6) | 479 (40.2) | 164 (13.8) | 1,088 | 159 (14.6) | 826 (75.9) | 103 (9.5) |
| 캄보디아 | 1,200 | 600 (50) | 600 (50) | 91 (7.6) | 589 (49.1) | 422 (35.2) | 98 (8.2) | 1,171 | 776 (66.3) | 382 (32.6) | 13 (1.1) |
| 말레이시아 | 1,214 | 602 (49.6) | 612 (50.4) | 101 (8.3) | 493 (40.6) | 479 (39.3) | 141 (18.4) | 1,198 | 285 (23.8) | 735 (61.6) | 175 (14.6) |
| Total | 19,436 | 9,696 (49.9) | 9,723 (50.1) | 775 (4.0) | 7,451 (38.3) | 7,639 (39.3) | 3,571 (18.4) | 18,254 | 5,778 (31.7) | 9,560 (52.4) | 2,916 (16) |

1) ABS는 2001년-2003년 아시아 8개국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시작으로 2005년-2008년에는 13개 국가 두번째 조사, 그리고 2010년-2012년에는 13개국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끝냈다. <http://www.asianbarometer.org/newenglish/introduction/Surveytimetable.htm>. 검색일자: 2014년 12월 20일.

대상 국가 전체를 보았을 경우 남성은 49.9% 여성은 50.1%가 조사에 참여했고,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4.0%, 21세-40세까지가 38.3%, 41세-60세까지가 39.8%, 그리고 61세 이상이 18.4%였다. 교육수준은 31.7%가 초등학교 졸업까지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52.4% 중등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그리고 16%는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1) 변수 측정

<표 3>은 분석에 사용할 변수와 변수에 대한 측정 내용이다. 종속변수인 부패인식에 대해선 “당신이 생각하기에 중앙정부에 얼마나 부패와 뇌물이 퍼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거의 아무도 관련되지 않았다’는 ‘1’, ‘부패한 관료가 많지 않다’는 ‘2’, ‘대부분의 관료가 부패하다’는 ‘3’, ‘거의 모든 사람이 부패하다’는 ‘4’로 응답하여 숫자가 증가할수록 부패가 심함을 보여준다.

독립변수인 각 정부기관에 대한 정부신뢰에 대한 측정은 공무원, 국가수장(대통령 또는 수상), 의회, 법원, 그리고 비정부(비영리)단체에 대해 당신은 각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합니까라고 묻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아주 많이 신뢰함’은 ‘4’, ‘많이 신뢰함’은 ‘3’, ‘많이 신뢰하지 않음’은 ‘2’, 그리고 ‘전혀 신뢰하지 않음’은 ‘1’로 코딩하여 숫자가 증가할수록 각 기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개인적 특성도 부패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Melgar, Rossie & Smith, 2010; Olken, 2009).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코딩했고, 연령의 경우 ‘20세 이하’, ‘21세-40세까지’, ‘41세에서 60세까지’, 그리고 ‘61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더미변수로 만들었고, 교육수준도 ‘초등학교 졸업까지’, ‘중등교육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그리고 ‘대학교 이상’으로 나누고 각각을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표 3〉 주요변수와 측정

| 변수 | 측정 |
|-------------------------|--|
| 부패인식 | 질문: 당신이 생각하기에 중앙 정부에 얼마나 부패와 뇌물이 퍼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아무도 관련되지 않았다: 1 부패한 관료가 많지 않다: 2 대부분의 관료가 부패하다: 3 거의 모든 사람이 부패하다: 4 |
| 공무원에 대한 신뢰 | 질문: 당신은 공무원에 대해 얼마나 신뢰합니까? 아주 많이 신뢰함: 4 많이 신뢰함: 3 많이 신뢰하지 않음: 2 전혀 신뢰하지 않음: 1 |
| 국가 수장(대통령 또는 수상)에 대한 신뢰 | 질문: 당신은 대통령 또는 수상에 대해 얼마나 신뢰합니까? 아주 많이 신뢰함: 4 많이 신뢰함: 3 많이 신뢰하지 않음: 2 전혀 신뢰하지 않음: 1 |
| 의회에 대한 신뢰 | 질문: 당신은 의회에 대해 얼마나 신뢰합니까? 아주 많이 신뢰함: 4 많이 신뢰함: 3 많이 신뢰하지 않음: 2 전혀 신뢰하지 않음: 1 |

| | |
|-------------------|---|
| 법원에 대한 신뢰 | 질문: 당신은 법원에 대해 얼마나 신뢰합니까? 아주 많이 신뢰함: 4 많이 신뢰함: 3 많이 신뢰하지 않음: 2 전혀 신뢰하지 않음: 1 |
| 비정부(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 | 질문: 당신은 비정부(비영리) 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합니까? 아주 많이 신뢰함: 4 많이 신뢰함: 3 많이 신뢰하지 않음: 2 전혀 신뢰하지 않음: 1 |
| 성별 | 남: 1 여: 0 |
| 연령 | 연령1: 20세 이하 / 연령2: 21세-40세 까지 / 연령3: 41세-60세 까지 / 연령4: 61세 이상 |
| 교육수준 | 교육1: 초등학교 졸업이하 / 교육2: 중등교육기관 - 고등학교 졸업 / 교육3: 대학교육 이상 |

2) 분석

<표 3>은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보여준다. ABS에 참여한 국가 전체의 부패 인식의 평균값은 2.5433이었고 각 기관에 대한 신뢰는 비정부단체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 국가 수장에 대한 신뢰, 법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의회에 대한 신뢰의 순으로 낮아졌다.

〈표 3〉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 변수 | obs | Mean | Std. Dev. | Min | Max |
|-------------------------|------|--------|-----------|-----|-----|
| 부패인식 | 9460 | 2.5433 | .8483 | 1 | 4 |
| 공무원 신뢰 | 9460 | 2.6089 | .8187 | 1 | 4 |
| 국가 수장 (대통령 또는 수상) 신뢰 | 9460 | 2.5765 | .8845 | 1 | 4 |
| 의회 신뢰 | 9460 | 2.3596 | .8809 | 1 | 4 |
| 법원 신뢰 | 9460 | 2.5285 | .8725 | 1 | 4 |
| 비정부(비영리) 단체 신뢰 | 9460 | 2.6554 | .7836 | 1 | 4 |

〈표 4〉 부패인식과 정부기관 신뢰에 대한 국가별 수준²⁾

| | 부패인식 | 공무원신뢰 | 국가 수장 신뢰 | 의회신뢰 | 법원신뢰 | 비정부단체 신뢰 |
|-------|-------|--------------|--------------|--------------|--------------|----------|
| 일본 | 25 | 28.66 | 19.86 | 11.38 | 55.37 | 50.47 |
| 한국 | 57.33 | 34.57 | 35.09 | 10.42 | 36.22 | 55.11 |
| 몽고 | 82.79 | 38.31 | 44.50 | 27.32 | 22.95 | 51.97 |
| 필리핀 | 70.71 | 54.58 | 35.10 | 43.30 | 42.72 | 59.40 |
| 태국 | 42.58 | 68.54 | 63.06 | 54.40 | 69.55 | 59.45 |
| 인도네시아 | 55.58 | 72.40 | 74.08 | 52.66 | 54.97 | 70.50 |
| 싱가포르 | 6.68 | 74.08 | 86.51 | 81.44 | 85.99 | 47.64 |
| 캄보디아 | 54.50 | 81.06 | 82.90 | 80.93 | 62.98 | 89.30 |
| 말레이시아 | 32.13 | 82.32 | 83.19 | 71.96 | 73.42 | 69.37 |

2) 국가 단위별 분석 후 유효 응답자 수가 극히 적어진 중국, 대만, 홍콩과 베트남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4>는 국가별 부패인식과 정부기관들 그리고 비정부단체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 표 안의 수치는 부패인식의 경우 ‘대부분의 관료가 부패하다’와 ‘거의 모든 사람(공무원)이 부패하다’에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조사된 국가들 중 몽고가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고 이하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순으로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졌다. 2010년 세계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인식지수(CPI)를 살펴보면 부패하지 않은 나라의 순서로 볼 때 싱가포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몽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순이었다. ABS의 부패인식 수준과 비교했을 경우 한국이 CPI 지수보다 ABS의 응답이 훨씬 더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캄보디아의 경우는 대상 국가들 중 CPI 지수는 가장 낮았지만 ABS의 조사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각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의 경우 ‘아주 많이 신뢰함’과 ‘많이 신뢰함’에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높고 이하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고, 한국, 그리고 일본 순으로 신뢰수준이 낮아진다. 국가수장(대통령 또는 수상)에 대한 신뢰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고 이하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몽고, 필리핀, 한국, 그리고 일본 순으로 신뢰수준이 낮아진다. 의회에 대한 신뢰는 싱가포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고, 일본, 한국 순으로 신뢰수준이 낮아지고, 법원에 대한 신뢰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몽고 순으로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한국, 몽고,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순으로 낮아졌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법원과 비정부(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는 높은 반면 국가 수장과 의회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은 비정부(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고 공무원, 국가수장, 법원에 대한 신뢰는 서로 비슷했으며 의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았다. 몽고의 경우는 비정부(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고 국가수장, 공무원, 의회, 그리고 법원 순으로 신뢰 수준이 낮아졌다. 필리핀은 비정부(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의회, 법원, 그리고 대통령 순으로 신뢰수준이 낮아졌다. 태국은 법원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고 공무원, 국가 수장, 비정부단체, 그리고 의회 순으로 신뢰수준이 낮아졌다. 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이 50%이상의 신뢰수준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역시 전반적인 신뢰 수준이 높다. 대통령의 경우 가장 높았고 이하 공무원, 비정부단체, 법원 그리고 의회 순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들 중 정부기관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정부신뢰를 보여준다. 특히 대통령과 법원에 대한 신뢰가 85%를 넘으며 의회에 대한 신뢰도 81%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 수준은 74.08%이고 비정부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47.64%였다. 캄보디아의 경우도 법원을 제외한 비정부단체, 대통령, 공무원, 의회 순으로 모두 80%

가 넘는 신뢰를 보여주었고 법원만이 62.9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경우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고 이하 공무원, 법원, 의회, 그리고 비영리단체 순으로 신뢰 수준이 낮아졌다. 말레이시아 역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정부신뢰 수준을 보여준다. 국가들간의 신뢰수준을 비교했을 경우 일본, 한국, 몽고의 경우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반면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정부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았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경우 세계은행의 정부효과성 지수가 각각 0.2, -0.2, -0.9 이하로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기에 이들 국가의 경우 정부신뢰가 반드시 해당 국가기관의 질이나 역량을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표 5>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패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종속 변수를 서열수로 사용했기에 본 연구는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분석을 실시했다 (Borooah, 2001). 분석은 STATA 버전 8.2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표 5〉 순서형 프로빗 모델(Orderd Probit Model)

| | 일본 | 한국 | 몽고 | 필리핀 | 태국 |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 캄보디아 | 말레이시아 |
|----------------|-------------------|---------------------|--------------------|-------------------|--------------------|-------------------|------------------|--------------------|--------------------|
| 공무원 신뢰 | -.200** (.060) | -.219*** (.061) | -.081 (.052) | -.051 (.050) | -.245*** (.057) | .0642 (.0674) | -.108 (.090) | -.137** (.052) | -.058 (.056) |
| 대통령 & 수상 신뢰 | -.157** (.058) | -.210*** (.0542) | -.024 (.046) | -.123** (.043) | -.132* (.059) | -.196** (.065) | .179 (.107) | -.243*** (.057) | -.245*** (.059) |
| 의회 | -.085 (.062) | -.116 (.064) | -.194*** (.052) | -.034 (.049) | -.050 (.062) | -.167** (.059) | -.283* (.112) | -.059 (.061) | -.116* (.057) |
| 법원 | -.030 (.050) | -.123* (.060) | -.0885 (.048) | -.141** (.046) | -.149* (.063) | -.070 (.058) | -.232* (.099) | -.245*** (.046) | -.170** (.057) |
| 비정부(비영리)기관신뢰 | -.064 (.045) | -.131* (.052) | -.029 (.047) | .039 (.042) | -.131* (.059) | -.126* (.061) | .176* (.070) | .129* (.057) | .065 (.053) |
| 성별 | .067 (.045) | .003 (.076) | -.013 (.074) | .075 (.068) | -.070 (.087) | .0007 (.075) | -.088 (.102) | -.081 (.080) | -.041 (.077) |
| 연령1 | .188 (.462) | .021 (.229) | -.197 (.221) | .161 (.170) | .036 (.344) | .308 (.208) | | -.141 (.208) | .148 (.187) |
| 연령2 | .124 (.083) | -.160 (.141) | -.180 (.125) | .179 (.111) | -.110 (.135) | .003 (.132) | -.174 (.191) | -.087 (.151) | .244 (.140) |
| 연령3 | -.002 (.075) | -.135 (.129) | -.179 (.127) | .160 (.113) | -.100 (.117) | -.019 (.129) | .107 (.178) | -.140 (.154) | .259 (.132) |
| 교육1 | .050 (.113) | -.192 (.169) | -.142 (.101) | .142 (.099) | -.005 (.144) | .056 (.137) | -.231 (.179) | -.054 (.208) | .192 (.134) |
| 교육2 | .106 (.069) | -.152 (.084) | .010 (.084) | .010 (.080) | -.007 (.148) | .009 (.136) | .014 (.122) | .105 (.212) | .223 (.106) |
| N | 1591 | 969 | 937 | 1037 | 682 | 895 | 571 | 813 | 888 |
| Log likelihood | -1190.6704 | -869.8480 | -989.5679 | -1231.0574 | -741.3590 | -1031.4306 | -478.9682 | -892.1877 | -924.6476 |
| Prob >chi 2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Pseudo R2 | 0.0277 | 0.0627 | 0.0203 | 0.0219 | 0.0591 | 0.0288 | 0.0377 | 0.0701 | 0.0549 |
| cut 1 | -2.87/ .1959 | -4.496/ .283 | -3.330/ .256 | -2.218 .198 | -3.613/ .289 | -3.149/ .288 | -.743/ .374 | -3.587/ .362 | -2.53/ .282 |

| | | | | | | | | | |
|-------|----------------|-----------------|-----------------|-----------------|-----------------|-----------------|----------------|-----------------|----------------|
| cut 2 | -.346/ .180 | -2.145/ .234 | -2.016/ .231 | -1.052/ .188 | -1.763/ .270 | -1.416/ .273 | .658/ .3767 | -1.888/ .351 | -.750/ .274 |
| cut 3 | 1.194/ .191 | -.424/ .228 | -.674/ .225 | .072/ .186 | -.869/ .266 | -.488/ .2713 | 1.275/ .395 | -.717/ .346 | .329/ .274 |

괄호안은 Standard Error 임

*** p < .001

** p < .05

* p < .01

각 국가별로 순서형 프로빗 회귀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일본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수상에 대한 신뢰가 높은 시민일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감소했다. 하지만 의회, 법원, 비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부패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통제변수로 사용된 성별, 연령, 교육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유사하게 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강한 시민일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법원과 비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다. 하지만 의회에 대한 신뢰는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통제변수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모두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몽고의 경우는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신뢰만이 그들의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의회에 대해 신뢰가 높은 시민일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이외의 다른 모든 기관과 통제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필리핀의 경우 대통령과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부패인식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기관들과 통제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태국의 경우 공무원, 대통령, 법원, 그리고 비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시민들의 부패인식과 부(-)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공무원, 대통령, 법원, 그리고 비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시민일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회에 대한 신뢰와 통제변수들은 부패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의 경우 한국과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대통령, 의회, 그리고 비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시민일수록 부패에 대해 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무원과 법원에 대한 신뢰 그리고 통제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싱가포르의 의회와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은 시민일수록 부패인식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무원과 대통령에 대한 신뢰 그리고 통제변수들은 부패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싱가포르의 특이한 사항은 비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비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시민일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캄보디아의 경우와 같다. 캄보디아의 경우 대통령과 법원에 대한 신뢰 수준은 부패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쳤지만, 비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부패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 대통령과 법원에 대한 신뢰가 강한 시민일수

록 부패에 대한 인식을 덜 했지만, 비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람일수록 부패가 더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비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다른 정부기관들보다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정부기관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정부가 부패하다고 더 느낄수 있을 것 같지만, 캄보디아의 경우는 비정부단체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법원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부패에 대해 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무원, 비정부기관, 그리고 통제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4. 분석의 함의

본 연구는 정부신뢰와 부패인식에 대한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에 진행된 세 번째 ABS자료를 분석했다. 정부신뢰와 부패인식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고 정부신뢰와 부패인식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한다.

첫째, 국가별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들은 정부신뢰를 제도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고 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부신뢰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정책을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을 의미했다. 그리고 문화적 입장에서는 정부신뢰가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 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정부의 성과가 정치신뢰를 높이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의 경우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지만, 이들 국가들에 대한 좀 더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은행의 정부의 효과성 지표는 아주 낮다. 즉 정부의 실제 역량과 시민들의 정부신뢰는 반드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필리핀과 같은 경우 문화적 측면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들 국가에 대한 정부신뢰의 연구에선 문화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국가의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이나 부패에 대한 인식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국가별로 구분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각 국가기관에 대한 각각의 신뢰 수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처럼 각 국가기관은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신뢰를 보여준다. 특히 일본의 경우 법원에 대해 신뢰하는 응답자는 55.37% 였지만 의회에 대해 신뢰하는 시민들은 11.38%에 불과했다. 또한 한국도 법원에 대해 신뢰하는 응답자는 36.22%였지만 의회에 대해 신뢰하는 시민들은 10.41%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정부신뢰 수준이 높았던 캄보디아의 경우도 국가수장에 대한 신뢰는 82.9%였지만 법원에 대한 신뢰는 62.98% 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도 국가수장에 대한 신뢰는 74.08%였지만 의회에 대한 신뢰

는 52.66%로 2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정부신뢰를 다수의 국가기관들에 대한 신뢰수준을 합하여 평균을 내서 측정하기 보다는 각각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을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국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에서 흥미로운 것은 일본과 한국은 모두 공통적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고 의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또한 필리핀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는 필리핀의 관료제가 낮은 보수와 정실주의 인사 그리고 부패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지 못하다는 통설과는 반대되는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별 그리고 기관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함의를 보면, 우선 일본은 시민들의 부패 인식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과 수상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과 유사하게 공무원과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시민들의 부패 인식을 줄이는데 중요하고, 이에 더해 법원과 비정부(비영리)기관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것이 부패 인식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태국도 마찬가지이다. 부패인식을 줄이기 위해 몽고의 경우는 의회, 필리핀은 대통령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캄보디아의 경우는 공무원, 대통령, 그리고 법원,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의회, 그리고 비정부기관, 그리고 싱가포르의 의회와 법원, 말레이시아는 대통령, 의회, 그리고 법원에 대한 역량의 강화가 시민들의 부패인식을 줄이는데 중요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국가의 특성(법전통, 식민지 국가, 정부형태 등)에 따른 국가기관 신뢰나 신뢰와 부패인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패턴을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패턴을 살펴보면 독일의 시민법의 영향을 받았던 일본과 한국은 내부통제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과 국가수장에 대한 신뢰가 부패인식을 줄이는 중요한 원인이었고,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국식 보통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부통제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 법원에 대한 신뢰가 모두 부패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민주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캄보디아와 싱가포르의 경우 비정부단체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시민들의 부패인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결론

이상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시민들의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이 부패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2010년 수행된 ABS 결과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국가별(일본, 한국, 몽고,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국가 기관별 정부 신뢰의 정도와 부패의 인식수준을 살펴 본 결과 국가별 그리고 기관별 정부신뢰의

정도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신뢰나 부패의 통제에 대한 연구에서 각 국가별 그리고 기관별 정부의 신뢰 수준과 부패 인식에 대한 영향의 정도가 다양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들이나 각 국가기관에 따른 다양한 신뢰의 수준과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식민지배, 정부유형 등에 따른 정부신뢰와 부패인식에 대한 명확하면서 다양한 패턴을 찾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먼저 정부신뢰부분에서 필리핀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 또는 캄보디아의 비정부단체에 대한 신뢰 등 각 국가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신뢰의 패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과 함께 각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를 정부의 질로 가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지표들을 찾아 이 지표들이 부패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같은 국가들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 측면도 고려하여 제도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모델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현섭 · 백승주(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201-228.
- 김두래(2013), 베트남. in 동아시아 거버넌스 리포트: 관료제를 중심으로, by 정부신뢰의 위기와 정부의 질 연구팀. 미간 원고.
- 김병규 · 이곤수(2013), 대통령신뢰와 행정부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541-566.
- 김왕식(2008), 부패-신뢰 상관관계의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연구, 17(1), 191-220.
- 박순애(2006), 일반논문: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부 신뢰의 관계: 우리나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2), 73-97.
- 박종민(1992), 정치불신의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26(1), 57-84.
- 박종민 · 배정현(2007), 정부신뢰와 정책선택 및 정부공정성에 대한 태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7(단일호), 1-17.
- 박종민 · 배정현(2011), 연구논문: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117-143.
- 박희봉, 신중호, & 황윤원(2013), 정부신뢰의 요인-정부정책인가? 정치태도인가?. 한국정책학회보, 22(1), 465-492.
- 임현(2013a), 싱가포르. in 동아시아 거버넌스 리포트: 관료제를 중심으로, by 정부신뢰의 위기와 정부의 질 연구팀. 미간 원고.
- 임현(2013b), 말레이시아. in 동아시아 거버넌스 리포트: 관료제를 중심으로, by 정부신뢰의 위기와 정부의 질 연구팀. 미간 원고.
- 장용진(2013a), 필리핀. in 동아시아 거버넌스 리포트: 관료제를 중심으로, by 정부신뢰의 위기와 정부의 질 연구팀. 미간 원고.
- 장용진(2013b), 홍콩. in 동아시아 거버넌스 리포트: 관료제를 중심으로, by 정부신뢰의 위기와 정부의 질 연구팀. 미간 원고.
- 최상욱(2013), 인도네시아. in 동아시아 거버넌스 리포트: 관료제를 중심으로, by 정부신뢰의 위기와 정부의 질 연구팀. 미간 원고.
- Anderson, C. J., & Tverdova, Y. V.(2003), Corruption, political allegiances, and attitudes toward government in contemporary democra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1),

91-109.

Blind, P. K.(2007, June), Building trust in govern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view of literature and emerging issues. In 7th Global Forum on Reinventing Government Building Trust in Government (pp. 26-29).

Borooah, V. K.(2001), Logit and Probit: Ordered and Multinomial Model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Brunetti, A., & Weder, B.(2003), A free press is bad news for corrup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7), 1801-1824.

Bukuluki, P.(2013), "When I steal, it is for the benefit of me and you": Is collectivism engendering corruption in Uganda?. International Letters of Social and Humanistic Sciences, (05), 27-44.

Catterberg, G., & Moreno, A.(2006), The individual bases of political trust: Trends in new and established democra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1), 31-48.

Chang, E. C., & Chu, Y. H.(2006), Corruption and trust: exceptionalism in Asian democracies?. Journal of Politics, 68(2), 259-271.

Dong, B., Dulleck, U., & Torgler, B.(2012), Conditional corrupt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3), 609-627.

Galtung, F.(1998), Criteria for sustainable corruption control. 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10(1), 105-128.

Herzfeld, T., & Weiss, C.(2003), Corruption and legal (in) effectiveness: an empirical investig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3), 621-632.

Hetherington, M. J.(2005), Why trust matters: Declining political trust and the demise of American libe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Kis Katos, K., & Schulze, G. G.(2013), Corruption in Southeast Asia: a survey of recent research. Asian Pacific Economic Literature, 27(1), 79-109.

Lambsdorff, J. G.(2007), The institutional economics of corruption and reform. Cambridge Books.

Lederman, D., Loayza, N. V., & Soares, R. R.(2005), Accountability and corruption: Political institutions matter. Economics & Politics, 17(1), 1-35.

Melgar, N., Rossi, M., & Smith, T. W.(2010),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2(1), 120-131.

- Mishler, W., & Rose, R.(2001), What are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Testing institutional and cultural theories in post-communist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1), 30-62.
- Morgenstern, S., & Manzetti, L.(2003), Legislative oversight: interests and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Argentina. *Democratic Accountability in Latin America*, 132-169.
- Morris, S. D., & Klesner, J. L.(2010), Corruption and trust: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vidence from Mexico.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3(10), 1258-1285.
- Orren, G.(1997), Fall from Grace: The Public's Loss of Faith in Government. in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edited by Nye, J. S. Jr., Zelikow, P. D., & King, D. C.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77-107.
- Pepys, M. N.(2005), Justice System, in *Fighting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strategies and analysis*. edited by Spector, B. I. Bloomfield, CT: Kumarian Press, pp. 13-26.
- Rose-Ackerman, S.(2001),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ah, Jon S. T.(2011), Curbing corruption in a one-party dominant system: Learning from Singapore's experience. in *Preventing Corruption in Asian: Institutional Design and Policy Capacity*, edited by Tina Gong and Steohen K. Ma., New York: Routledge. pp. 131-147.
- Ser, T. E., & Zhengxu, W.(2007), Singapore Country Report: Second Wave of Asian Barometer Survey (No. 35). Working Paper Series.
- Tanzi, V.(1998), Corruption around the world: Causes, consequences, scope, and cures. *Staff Papers-International Monetary Fund*, 559-594.
- Treisman, D.(2000), The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6(3), 399-457.
- Uslaner, E. M.(2008), Corruption, inequality, and the rule of law. *The Bulging Pocket Makes the Easy Life*.
- Wong, T. K. Y., & Hsiao, H. H. M.(2011), The bases of political trust in six Asian societies: Institutional and cultural explanations compared.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0192512110378657.
- Xin, X., & Rudel, T. K.(2004), The Context for Political Corruption: A Cross National Analysis. *Social Science Quarterly*, 85(2), 294-309.

Yu, C., Chen, C-M, Hu, L.T., & Juang, W-J(2009), Evolving perceptions of government integrity and changing anticorruption measures in Taiwan. in *Preventing Corruption in Asian: Institutional Design and Policy Capacity*, edited by Tina Gong and Steohen K. M., New York: Routledge. pp. 189-205.

투고일자 : 2015. 04. 14

수정일자 : 2015. 06. 28

게재일자 : 2015. 06. 29

<국문초록>

정부신뢰와 부패인식: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장 용 진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패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다. 각 개별국가들의 의회, 법원, 대통령(또는 수상), 공무원, 그리고 비정부(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시안 바로미터 서베이 세 번째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은 의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았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의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대통령과 공무원들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일본, 한국, 몽고,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시민들은 비정부(비영리)단체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정부신뢰가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의 경우 시민들의 공무원과 수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고 한국과 태국은 공무원, 국가수장, 법원, 그리고 비정부단체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감소했다. 몽고의 경우 의회에 대한 신뢰만이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필리핀은 대통령과 법원에 대한 신뢰,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의회, 그리고 비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말레이시아는 대통령, 의회, 법원에 대한 신뢰, 싱가포르는 의회와 법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캄보디아는 공무원, 대통령, 그리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수록 시민들의 부패인식이 낮아졌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캄보디아의 경우 비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시민들의 부패인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주제어: 정부신뢰, 부패인식, 아시아 국가 비교연구